

KIA 양현종·최지민·소크라테스·최형우,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2023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빛낸다



선발투수 부문 양현종 중간투수 부문 최지민 외야수 부문 소크라테스 지명타자 부문 최형우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첫 전 구단서 1명 이상 올스타 배출
드림, 롯데 7명·나눔, KIA 4명 '최다'...이정후 최다 득표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과 최지민, 외야수 소크라테스와 최형우가 나눔 '올스타 12'에 뽑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를 확정해 발표했다.

드림과 나눔 '올스타 12'는 지난 5-25일 신한 SOL 앱, KBO 홈페이지, KBO 공식 앱 등 총 3개의 투표페이지에서 진행된 팬 투표와 10개 구단 감독, 코치, 선수 등이 참여한 선수단 투표를 합산해 확정했다.

지난해 올스타전 팬투표 최다득표의 영광을 안았던 KIA 에이스 양현종은 선발투수 부문에서 총점 2,907을 얻어 안우진(키움·2,221점), 문동주(한화·2,040점), 페디(NC·1,779점), 플러크(LG·1,053점)를 따돌리며 선발 투수부문 1위에 자리하며 통산 5번째 올스타 베스트에 선정됐다.

올 시즌 KIA 불펜에서 깜짝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지민은 중간 투수 부문에서 총점 4,269점으로 박명근(LG·2,727점), 강재민(한화·1,236점), 임창민(키움·1,212점), 김진호(NC·1,003점)를 여유 있게 제치며 프로 2년 차에 첫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외야수 부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총점 4,539점으로 이정후(키움·3,938점)에 이어 2위에 자리하며, 박건우(NC·3,328점)와 함께 상위 3인에 들었다.

지난 1, 2차 팬 투표 중간 집계에서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정후는 마지막 주에도 선두를 유지하며 2백39만2천236표 중 1백24만2천579표(51.9%)의 높은 득표율로 팬 투표 1위를 차지했고, 선수단 투표에서도 355표 중 276표(77.7%)로 1위를 기록하며 팬과 선수 모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년 두산 양의지에 이어 역대 2번째이다.

또한, 이정후의 선수단 득표 276표(득표율 77.7%)는 2016년 NC 나성범(NC), 2022년 피렐라(삼성)의 236표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다 선수단 득표 및 득표율로 기록됐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리그 최초 1천500타점 신기록을 세운 최형우가 KIA 선수들 중 유일하게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 1위를 차지하며 통산 6번째 올스타 베스트에 뽑혔다.

마무리 부문 올스타에 도전했던 정해영은 팬투표에서 91만2천951표로 고우석(LG·50만1천429표)을 크게 앞섰지만 선수단 투표 합산 결과 총점 29,500점으로 고우석(29,888점)에 0.38점 차 뒤져 어렵게 탈락

2023 올스타전 베스트12 명단

	드림 올스타	나눔 올스타
선발투수	박세웅(롯데)	양현종(KIA)
중간투수	구승민(롯데)	최지민(KIA)
마무리투수	김원중(롯데)	고우석(LG)
포수	양의지(두산)	박동원(LG)
1루수	박병호(kt)	채은성(한화)
2루수	안치홍(롯데)	김혜성(키움)
3루수	최정(SSG)	노시환(한화)
유격수	노진혁(롯데)	정주원(NC)
외야수	구자욱(삼성)	이정후(키움)
	피렐라(삼성)	소크라테스(KIA)
지명타자	김민석(롯데)	박건우(NC)
	전준우(롯데)	최형우(KIA)

했다. 이번 올스타 '베스트 12'는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처음으로 모든 구단의 선수가 1명 이상 선정돼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구단별로는 드림 올스타에서 롯데 7명, 삼성 2명, SSG, KT, 두산은 각각 1명씩 선정됐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 4명, 키움, LG, NC, 한화에서 2명씩 선정됐다.

한편,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 SSG 김원형, 나눔 올스타 키움 홍원기)의 추천 선수는 각 팀 13명씩, 총 26명을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2023 올스타전은 오는 7월15일 사직구장에서 열린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체육회, 외부 전문가 위촉감사관제 운영

'공정·투명'한 체육행정 다짐

김태연 신임 감사관 위촉

광주시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를 만들고 감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감사관을 위촉,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6일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 김태연 신임 감사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시체육회는 그동안 직원들이 스스로 자체 감사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민선 2기 조직쇄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무처 조직 내부를 감찰하고 조직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된 김태연 감사관은 광주주시선거관리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처 및 회원단체 감사관련 자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민선 2기 기간과 같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감사관 위촉을 계기로 사무처 조직기강 확립 및 회원단체 지원을 강화해 민선 2기 체육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갑수 체육회장(왼쪽)이 김태연 감사관을 위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한국 U-17, 2회 연속 월드컵 간다

U-17 아시안컵 4강 진출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태국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6일(현지시간) 태국 빠툼타니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강민우(울산현대고)-김명준(포항제철)-윤도영(충남기계고)-김현민(영등포고)의 릴레이 득점을 앞세워 4-1로 대승했다.

준결승 진출을 확정된 한국은 이번 대회 1-4위 팀에 주어지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11월10-12월2일·인도네시아)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 U-17 월드컵(8강 진출)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서게 됐다. 더불어 U-17 아시안컵 4강 진출도 2018년 대회에 이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 윤도영이 26일(현지시간) 열린 태국과의 8강전에서 후반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어 2회 연속이다. 한국은 26일 치러지는 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 8강전 승자와 한국시간 29일 오후 11시 빠툼타니스타디움에서 4강전을 펼쳐 결승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역대 두 차례 우승(1986년·2002년)을 맛봤다. /연합뉴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신지애. <JLPGA 홈페이지 캡처>

신지애, 어스몬다민컵 우승 JLPGA 투어 영구시드 '-2'

신지애(34)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영구시드에 2승 앞으로 다가갔다.

신지애는 지난 25일 일본 지바현 카멜리아 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투어 어스 몬다민컵(총상금 3억엔) 최종일 연장전에서 이와이 아키에(일본)를 제압하고 우승했다.

둘은 최종합계 13안타와 27타로 연장전을 벌였고, 신지애는 18번 홀(파5)에서 치른 첫 번째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 승부를 결정지었다.

신지애는 우승 상금 5천400만엔(약 4억9천28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2위(1억1천900만엔)로 올라섰다.

지난 3월 다이킨 오픈 레이디스에 이어 J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신지애는 JLPGA 투어 공식 통산 28승째를 따냈다. /연합뉴스

문화중, 중고농구 권역별대회 2연패

강호 전주남중 등 격파 5전승 3년 연속 왕중왕전 진출 쾌거

광주 문화중 농구부가 '2023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권역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오는 8월4-13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리는 '2023 한국중고농구 왕중왕전'에 3년 연속 출전한다.

문화중은 지난 10-25일 광주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호남·대전·제주권역 남중부 E조에서 5전 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문화중 농구부는 지난 11일 군산중과의 첫 경기에서 115-83으로 이겨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어 17일 제주동중(123-53), 18일 대전중(98-71), 24일 여천중(88-60)을 연파하고 4연승을 거뒀다.

상승세를 이어간 문화중은 지난 25일 전통적인 강호인 전주남중과의 마지막 경기를 101-96, 승리로 장식하며 지난해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중의 우승은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군산중과의 첫 경기에서 센터 김건우가 발목인대 파열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문화중 선수들이 지난 25일 열린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전주남중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중 제공>

또 주장 정유민, 김경륜의 부상으로 힘든 경기가 예상됐지만 탄탄한 조직력과 체력으로 약재를 극복하며 값진 성과를 이뤘다.

선수들의 투혼도 빛났다. 주장 정유민과 김경륜은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코트를 누볐고, 박주현, 김지성, 추우담은 혼신의 힘으로 부상 선수들의 뒷까지 2배 이상으로 뛰었다.

특히 가드 박주현의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였다.

드리블링과 슈팅 능력은 물론 수비 능력까지 겸비한 박주현은 이번 대회에서 총 107득점(경기당 평균 21.4점) 45리바운드 44어시스트 22스틸 1블록슛을 기록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김서령 문화중 교장은 "크고 작은 많은 부상들로 인해 선수들이 끝까지 시합을 펼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선수들은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줬다"며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팀워크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023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은혜, 최세민, 홍하은, 윤지수.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최세민, 표펜싱선수권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합작'

5회 연속 국제대회 입상 선전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민이 2023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다.

최세민은 지난 22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전은혜(인천중구청), 윤지수, 홍하은(이상 서울시청)과 팀을 이뤄 중국을 45-4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에서 부전승, 8강전에서 싱가포르를 45-32, 준결승에서 홍콩을 45-34로 차례

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최세민은 지난해 11월 알제리 월드컵 동메달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 지난 3월 아테네 월드컵 은메달,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월드컵 금메달에 이어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5연속 국제대회 입상을 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세민은 오는 9월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10월 안방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빛 도전'을 이어간다. /박희중 기자